

Sermon of the Week: A New Beginning in Christ



Passage: 2 Corinthians 5:17-21 (ESV)

Date: October 26, 2025

Pastor: Dong Suk Chung

The curse in the lives of people today is that a person who was created in God's image and likeness—in order to become one with God—left that position, saying, "I will become God." No matter how much a person gains in this world, there is no true satisfaction. From birth, every human being walks the same single path toward the grave. For such a hopeless humanity, God's remedy was this: that He Himself came into the world, died on the cross, and rose again.

The central truth of the Christian faith is that God became man to destroy everything in humanity that belongs to death, sin, and Satan's nature, and to be raised as the Son of God on the third day. The only place where we can become one with Jesus is at the cross at Calvary—the place of death. That is where we return to the place God first called "very good," when He made man from the dust. This faith does not arise from within ourselves. The Holy Spirit opens our eyes to see that when Jesus was crucified on the cross, "I" also died with Him.

Through the death and resurrection of Jesus Christ, our spirit, soul, and body have been fully redeemed. This salvation is already a completed reality. According to the complete work of salvation, the Lord who now dwells in us by the Holy Spirit is completing His work of salvation from our spirit, to our soul, and then to our body. Our earthly life is not centered on what we eat, drink, or wear; it is a journey of salvation, putting to death the deeds of the body

through the Spirit.

The tragedy, however, is that many Christians today live according to the soul even after being saved. They do not surrender their souls to death. They believe that Jesus died *for* them, but not that they died *with* Him. Such a soul-driven faith leads to striving: trying to avoid sin, working hard to be righteous, and repenting again and again in hopes of gaining faith. But this is Satan's deception. Because the first Adam failed, God sent the last Adam to begin anew. God's will is not that the "I" in Adam tries harder to live a religious life, but that the "I" be handed over to death.

When we try to imitate Jesus through our own efforts, faith becomes a heavy burden. Christianity is grace. We did nothing but sin, yet God became man, died, and rose again—completely finishing the work of our redemption. As Scripture says, we are new creations in Christ Jesus. Faith does not come from human effort, rather "faith comes from hearing" [Romans 10:17]. When we hear and believe that Jesus accomplished everything on the cross, faith is born within us. In this work of redemption, we have added nothing. It is entirely the work of God. The first Adam, the "I", must die completely. If we do not hand the "I" over to death, we will only keep trying to resemble Jesus by our own strength.

Our fundamental sin is that we, who were created in God's image, listened to Satan's lie and made ourselves the master of our lives and thus departed from God. Therefore, true Christian repentance is not merely feeling sorry for sinful actions. It is metanoia—a fundamental repentance that happens once in a lifetime.

When we hear the gospel of the cross

and realize that the moment Christ shed His blood, all our sins were already forgiven, we turn back to Him. Many Christians continually repent of yesterday's sins, today's sins, and tomorrow's sins, but this is not the repentance the Bible speaks of. The thief on the cross and the apostle Paul did not weep in regret for their misdeeds. At first, they mocked Jesus or persecuted His followers, but by the mighty work of the Holy Spirit, they turned around—that was repentance. When the redeeming Spirit of Christ comes down from our spirit into our soul, leading us into obedience, we come to truly see that we are the chief of sinners.

True faith must begin with Jesus Christ. Faith that begins with "me" leads only to effort, self-righteousness, and judgment toward others. The devil subtly draws even saved people back to Adam's position: the life of law-keeping and self-effort. This is why Paul declared "The old has passed away; behold, the new has come" [2 Corinthians 5:17], urging believers not to return to Adam.

As we live in this world, we may still sin or suffer illness. Yet the Word declares that we are new creations in Christ—therefore, sin and sickness no longer define us or belong to our true identity. Jesus' shed blood has made us complete and that is our true identity. When we firmly hold onto this truth, the devil, sin, and sickness will flee. Even when we fall into sin or face hardship, we should not struggle to fix ourselves. Instead, let us take refuge under the shadow of the cross, receiving and rejoicing in the full grace that the Lord has already given us.

심니소식

나성교회



심성교회

11월 9일, 2025년

NASUNGCHURCH.NET

80 호

이번주 은혜의 말씀

본문: 고린도후서 5장 17-21절

날짜: 10월 26일, 2025년

설교자: 정동석 목사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져 하나님과 하나가 될 사람이, 하나님이 되겠다고 그 위치를 떠난 것이 저주이며, 오늘 인생들의 삶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갖추어도 만족하지 못하며, 태어날 때부터 무덤으로 가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게 되었습니다. 이런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내리신 처방은, 바로 하나님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기독교의 핵심 믿음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사람 안에 있는 모든 사망과 죄, 사탄의 본질을 완전히 없애시고, 삼일 만에 하나님의 아들로 부활시키신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와 내가 하나가 될 수 있는 위치는 갈보리 십자가, 곧 '죽음의 자리'입니다. 이는 처음 흠으로 지으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다고 하신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신 것이 곧 내가 매달린 것임을 성령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영, 혼, 몸 전체가 구원받았습니다. 이는 이미 법적으로 완성된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법에 따라 오늘날 성령으로 오신 주님이 우리 안에서 영, 혼, 몸의 순서로 구원을 이루어가십니다. 우리의 인생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구원의 여정이지만, 이 세상에서 무엇을 먹고 마실까, 입을가에 중심을 두는 삶이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는, 오늘날 많은 기독교

인들이 구원을 받은 후에도 혼을 죽음에 넘기지 않고 여전히 혼의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내가 함께 죽었다가 아니라, 예수님만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만 믿는 것입니다. 혼을 따라 사는 신앙 생활은 내가 철저히 노력하고, 죄를 짓지 않으려 애쓰며, 열심히 회개해야 믿음이 생긴다고 여기는 삶입니다. 그러나 이는 사탄의 거짓말입니다. 첫 번째 아담이 실 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마지막 아담을 보내시어 새로 시작하셨습니다. 아담 안에 있는 '내가 신앙생활을 하며 죄를 짓지 않으려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 옛사람을 죽음에 넘기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내가 스스로 예수를 닮으려 하는 신앙생활은 결국 무거운 짐이 됩니다. 기독교는 은혜입니다. 나는 죄를 지은 일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죽고 부활하시며 내 죄를 다 해결하시고 완성하셨습니다.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는 예수 안에서 새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믿음은 사람의 노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사실을 들을 때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 구속의 역사에 우리는 아무것도 더한 것이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입니다. 첫 번째 아담, 즉 옛사람은 철저히 죽어야 합니다. 이 아담을 죽음에 넘기지 않으면 우리는 스스로 예수를 닮으려 애쓰게 됩니다.

우리의 근본 죄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 받은 존재가 사탄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거역하여 내가 주인이 된 것, 곧 하나님을 떠난 그 자리 자체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회개는 단순히 죄의 행동을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메타노이아', 즉 인생에 단 한 번 일어나는 근본적인 회개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들을 때, 주님이 피 흘리시는 순간 나의 모든 죄가 이미 용서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자리에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어제 지은 죄, 오늘 짓는 죄, 내일

짓게 될 죄에 대해 밤낮으로 회개하지만, 이것은 참된 기독교의 회개가 아닙니다. 우편 강도도, 사도 바울도 자신이 잘못했다고 울며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비난하거나,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 가던 이들이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그 길에서 돌아선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리고 구속하신 주님의 성령이 내 영에서 혼으로 내려와 순종하게 될 때, 비로소 자신이 죄인 중의 괴수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나로부터 시작된 신앙은 많은 노력과 열심을 요구하며, 자기 의로움과 타인에 대한 판단을 낳습니다. 마귀는 교묘하게 구원받은 사람들을 다시 아담의 자리, 율법을 지키는 자리로 끌고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선포하며, 다시 아담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죄를 짓거나 질병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이 되었다는 말씀을 보면, 이런 죄나 질병은 더 이상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피 흘려 우리를 온전케 하신 것이 우리의 참된 정체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굳게 붙잡으면 마귀와 죄, 질병이 떠나갈 것입니다. 죄를 지었거나 어려운 환경이 와도 스스로 해결하려 애쓰지 말고, 예수의 십자가가 그늘 아래로 들어가 주님이 주신 은혜를 온전히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을 바랍니다.

해당 설교는 오른쪽의 QR코드를 스캔해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나성교회 온라인 헌금

온라인으로 헌금을 내실 때는 왼쪽의 QR코드를 카메라로 스캔해 주세요.

나성교회 연락처

- +1 562-690-7979
- <https://nasungchurch.net>
- information@nasungchurch.net
- 1620 Fullerton Rd
La Habra Heights
CA 90631
- 도서관 운영 시간
주일 오전 9:30 - 오후 1:30

나성교회 예배안내

모임	시간	장소
주일예배 1부	오전 8시	대예배실
주일예배 2부	오전 11시	대예배실
영어부 예배 (RHBC)	오전 11시10분	EM 예배실
수요예배	오후 7시	대예배실
유치, 유년부 (Seeds)	오전 11시	Seeds Room
중, 고등부 (Abide)	오전 11시 10분	EM 예배실

삼성교회 연락처

- +82 02-2293-4421
- <http://samsungch.or.kr>
- 서울시 성동구 왕십리로 400 (우) 04701
- 지하철
 - 2호선 상왕십리역(1번 출구)
 - 2호선 신당역(2번 출구)
- 버스
 - 147, 202, 241, 302, 463, N62, N73, 1017, 2012, 2013, 2014, 2015, 6211, 성동01

삼성교회 예배안내

모임	시간	장소
주일예배 1부	오전 9시	대예배실 (지하 1,2층)
주일예배 2부	오전 11시	대예배실
수요예배	오후 7시 30분	대예배실
유치부	오전 11시	4층 예배실
유년 주일학교	오전 11시	2층 예배실
청소년부	오전 10시 30분	3층 예배실
청년부	오후 2시 30분	3층 예배실

중보기도

교회 공통 기도제목

- 나성교회와 삼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십자가를 사랑하며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하는 말씀처럼 주님이 성도들 안에 살아 움직이셔서 주의 뜻을 이루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 나성교회와 삼성교회 사역자들 (정동석 목사, 서영민 목사, 이해운 목사, 김재형 목사, 차재성 목사, 제레미 서 목사, 최귀순 전도사)의 사역과 영육 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 교회학교 (유치부, 유년부, 청소년부)를 위해 수고하는 사역자들과 교사들의 영육 간의 강건함과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통해 다음 세대가 잘 양육될 수 있도록
- 나성교회와 삼성교회 연합사역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준비되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 지방과 해외에서 인터넷을 통해 말씀으로 하나 된 지체들을 위해
- 섬이나 오지 등 교회가 없는 지역의 복음 전도를 위한 방안들이 모색되고 준비될 수 있도록
- 새로 나오시는 새가족분들이 교회에 잘 적응하실 수 있도록
- 광주기도처의 성도들을 위해
- 나성교회 영어부(EM)의 사역자와 성도들을 위해
- 임주영 목사 멕시코 선교를 위해 (가족들의 현지 적응과 복음 사역)
- 포항 등 각 지역에 기도처가 세워질 수 있도록
- 올해 11월에 있을 요한계시록 집회를 위해

나성교회 중보기도 제목

- 유니스 안** 4,5 여선교회 유방암 항암치료와 난소 제거 수술을 받았습니다. 치료와 회복을 위해 (안현숙 권사 딸)
- 고원창 집사** 여호수아회 항암 치료중에 stroke으로 인한 치료 후 재활 병원에 입원중입니다. 치료와 회복을 위해
- 이성희 자매** 1여선교회 교회에서 넘어져 팔의 접골 부상을 입었습니다. 치료와 회복을 위해 (세리토스 구역)
- 심순근 권사** 모세회 폐 염증이 심하고 호흡이 어려우신 상태로 중환자실에 계십니다. 빠른 회복을 위해
- 송제인 집사** 1여선교회 항암치료와 수술, 회복과 병원 비용이 보험으로 잘 처리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인도를 위해
- 김상준 형제** 4,5 남선교회 위암으로 항암치료가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치료와 회복을 위해
- 이시용 장로** 모세회 담석수술과 패혈증 치료를 받았습니다. 회복을 위해
- 한아림 자매** 청년회 난소암 수술을 받았습니다. 남은 치료와 회복을 위해
- 서인숙 권사** 한나선교회 위암 수술을 했습니다. 회복과 건강을 위해
- 김묘자 권사** 모세회 천식이 재발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회복을 위해
- 김폴리 자매** 3여선교회 폐암 4기로 항암 치료 중에 있습니다. 치료와 회복을 위해
- 이수영 장로** 여호수아회 무릎 관절 수술을 하였습니다. 수술 후 회복과 건강을 위해
- 김영자 집사** 모세회 폐암 4기로 치료 중에 있습니다. 치료와 회복을 위해
- 최지민 자매** 1여선교회 유방암과 림프 전이 및 전신 건강 회복과 강건을 위해

삼성교회 중보기도 제목

- 김옥경 집사** 82세 치매와 우울증 증세 회복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 김현숙 집사** 61세 귀 진주종 수술 후 두통과 귀에 통증 심합니다. 회복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 정신자 집사** 자녀들(하영주, 주연, 승찬, 영숙) 알콜중독에서 벗어나 주님을 영접하고 영혼구원 받을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 권오중 집사** 47세 척수증양으로 인한 사지마비(가슴 아래 하반신) 장애입니다. 강직약, 통증약 등 약을 많이 먹는데 약기운을 잘 견딜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 장현주 집사** 신장 기능 저하(40% 정도)와 당뇨로 약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신장 약을 먹을 때 어지럽고 힘이 듭니다. 신장 기능과 당뇨가 치유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 김영희 자매** 60세, 도봉구역 궤양성대장염으로 20년간 약을 먹고 있습니다. 치유와 회복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 김연희 집사** 허리 디스크 탈출과 협착증으로 수술하였습니다. 마비되었던 엄지 발가락이 아직 정상으로 돌아오지 않아서 발에 힘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회복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 윤춘자 집사** 81세, 양주구역 허리협착증 수술을 하였습니다. 회복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 김형로 집사** 윤춘자 집사 남편 전립선암 수술 후 후유증으로 섬망증상이 있습니다. 회복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번주 묵상

아래의 묵상 질문들을 활용하셔서 들었던 말씀을 더욱 깊이 묵상하며 받은 은혜를 되새겨보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 1페이지의 <이번주 은혜의 말씀>과 본문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7-21절)을 다시 읽어보세요. 말씀을 다시 읽으면서 은혜가 되었던 부분을 간단히 적어 보세요.

2. 혼을 따라 사는 신앙생활의 문제는 무엇이며 참된 신앙생활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까?

3. 묵상한 말씀을 통해 격려가 되었던 말씀이나 소망을 품게 된 말씀을 아래에 간단히 적어보시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후에 2페이지에 있는 중보기도 제목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주간소식

• 우리 교회에서 11월 중순 (11/19 - 11/23)에 있을 계시록 말씀 사경회가 가까웠습니다. 강사이신 담임 목사님의 충만하심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번 집회를 위해 공항 이동, 숙소 이동, 주차 안내, 식사 준비 등 여러 부분에서 많은 봉사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함께 섬겨주실 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집회를 널리 알리기 위해 포스터와 홍보 전단지를 로비 입구에 비치했습니다. 가져가셔서 주변에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번 집회에는 어린 자녀들과 함께 참석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집회 기간 중 하루라도 childcare 봉사로 섬겨주실 수 있는 분은 주일학교 담당 이보현 자매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집회를 위해 교우 여러분의 기도와 협조, 그리고 찬조를 부탁드립니다.

- 오늘 2부 예배 후에 구역장 모임이 있습니다. 구역장들께서는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위원회 선교부에서는 금주 토요일 (11/15) 김학철 목사님께서 섬기시는 아들람 (Home Depot) 선교사역에 동참할 예정입니다. 아침 7시 50분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참석이나 찬조를 원하시는 분은 황찬익 형제에게 연락바랍니다.
- 다음 주일에는 남녀 선교회 모임이 있습니다. 선교회원들께서는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성교회 삼나소식

왼쪽의 QR코드를 스캔하셔서 나성교회 삼나소식을 pdf 파일로 보실 수 있습니다.